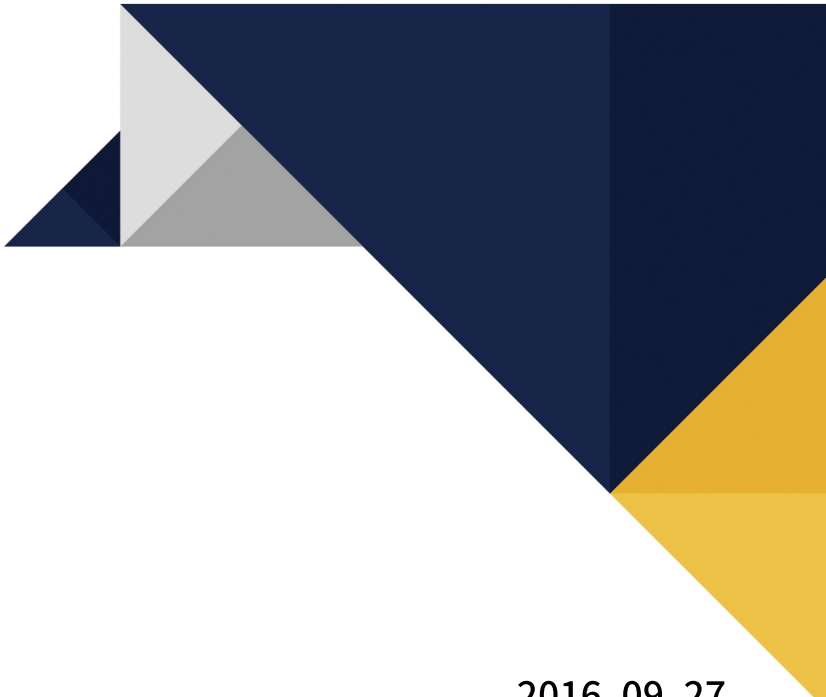


EVENT REVIEW

일본국가전략연구

참의원 선거 이후
정치구도와 정책 전망



2016. 09. 27
최희식 (국민대)

1. 정당체제로 본 일본의 보수화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선거구	비례구		선거결과	선거전 의석	선거후 의석
자민당	37	19	36%	56	115	121
민진당	21	11	21%	32	60	49
공명당	7	7	14%	14	20	25
공산당	1	5	11%	6	11	14
오사카유신회	3	4	9%	7	7	12
사민당	0	1	3%	1	3	2
생활의당	0	1	2%	1	3	2
무소속	4	0		4	14	11
(여당계)	0	0		0	5	3
(야당계)	4	0		4	4	5
(그 외)	0	0		0	5	3
기타 정당	0	0		0	8	6
총	73	48		121		242

* 아사히 신문(<http://www.asahi.com/senkyo/senkyo2016/>)

○ 선거결과의 특징

헌법개정을 위한 2/3 의석 확보

연립여당, 오사카 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당(日本のこころを大切にする党),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2/3 의석을 달성함.

도호쿠 보수왕국의 몰락

자민당은 지역구 37석, 비례구 19석, 총 56석을 획득. 무소속 히라노 다츠오(平野達男)가 입당할 예정이어서 27년 만에 단독 과반수. 그러나 오키나와(沖縄)와 후쿠시마(福島)에서 현역 대신이 낙선했으며, 보수왕국으로 불리우던 도호쿠 지역 6선거구에서 와키타(秋田)현을 제외하고 모두 야당 단일후보에 패배.

민진당의 선전? 대패?

민진당은 지역구 21석, 비례구 11석, 총 32석 획득, 선거 전의 45석에서 대폭 후퇴. 그러나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17석보다는 상회하여, 야당 통합 효과가 발생한 측면도 존재함. 또한 NHK 출구조사에 의하면 무당파의 27%가 비례대표에서 민진당에 투표했으며, 26%가 자민당에 투표했음. 이는 민진당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고 보여짐.

공명당과 일본 공산당의 약진

공명당은 융합했던 지역구 7석에 모두 승리하고, 비례구 7석을 합쳐 14석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보임. 비례구 득표율은 14%로 역대 선거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 선거연합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일본 공산당은 도쿄 지역구 1석, 비례구 5석 포함 총 6석 획득.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가 2013년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3석을 획득한 후 그 추세가 지속됨. 동시에 비례구 득표율도 2007년 7%(3명), 2010년 6%(3명), 2013년 10%(5명), 2017년 11%(5명)으로 자민당 재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오사카 유신회: 오사카(大阪) 선거구 2석, 효고(兵庫) 선거구 1석, 비례구 4석 획득. 정치적 기반이었던 긴키(近畿) 지역에서 승리한 반면, 긴키 이외의 선거구에서는 참패, 이후 당명에서 오사카를 없애기로 결정.

○ 자민당 승리의 원인

국민들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NHK 출구조사: 아베노믹스를 평가한다 56%, 평가하지 않는다 12%. 아베노믹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의 57%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민당에 투표. (cf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노믹스를 평가한다 53%, 평가하지 않는다 47%)

야당의 헌법개정 선거쟁점화 실패 및 선거협력 상의 문제점

전체 1인구 선거결과는 자민당 후보 21석 대 야당 단일후보 11석이었음. 야당 선거협력은 도호쿠 지역에서 발휘됨. 자민당이 집중 유세를 했음에도 자민당은 6선거구 중 1선거구에서만 승리. 그러나 선거협력이 늦었던 가가와현(香川)현은 야권 단일후보인 공산당 후보가 대패함.

청년들의 투표성향: 생활 보수주의?

NHK 출구조사에 의하면 비례투표에 자민당 투표 39%, 민진당 투표 23%이었음. 그러나 18세 및 19세 유권자는 자민당 투표 42%, 민진당 투표 20%이었음. 아사히 신문 출구조사에서는 18세 및 19세(40%, 17%), 20대(43%, 16%), 30대(40%, 16%), 40대(37%, 19%), 50대(35%, 21%), 60대(33%, 22%), 70대 이상(35%, 22%)였음. 연령이 높을수록 자민당 비례대표 투표가 줄어든 상황을 알 수 있음.

NHK 출구조사에서 아베노믹스를 평가한다는 18세 및 19세 유권자는 64%, 20대는 67%였음. 전체 평균이 56%였음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임.

반면, 동 출구조사에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18세 및 19세 유권자는 22%(필요없다는 26%)로, 전체 평균(필요하다 33%, 필요없다 32%)에 비해 낮게 나옴.

결국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은 설명력이 약하며,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에 자민당에 투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2. 자민당 내 파벌 정치로 보는 일본의 보수화

파벌	수장	의원수
細田派	細田博之	98
額賀派	額賀福志郎	51
岸田派	岸田文雄	41
麻生派	麻生太郎	39
二階派	二階俊博	37
石破派	石破茂	20
石原派	石原伸晃	15
山東派	山東昭子	12

3. 리버럴 세력의 체력: 야당 통합과 혼란

도쿄도 지사 선거(7월 31일)에서 야당 단일후보 鳥越俊太郎의 참패. 岡田克也의 7월 30일 당대표선거 불출마 표명.

민진당 당대표 선거(9월 15일), 蓮舫의 승리. 야당 공조 정책 견지.

10월 23일 중의원 보궐선거(東京10区, 福岡6区)에서 민진당과 공산당은 각각 후보를 공인했으나 야당 공조의 가능성은 존재.

4. 일본의 보수화와 공존 전략

정당체제, 자민당 내 파벌 역학구조, 리버럴 세력의 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본의 보수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일본의 대외전략은 이데올로기 보수그룹과 현실주의 보수그룹의 적절한 타협 위에 전개될 것이다. 작금의 아베 내각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베 수상은 태생적으로 전자의 이데올로기 그룹에 속해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기에 아베 내각 초기에는 침략의 정해진 개념은 없다고 거침없이 발언했으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도 했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수정하고자 노력도 했다.

그러나 2014년 후반 이후 현실주의 그룹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그건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주체성을 세우려는 노력이 미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킨다는 판단이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5년 8월 14일 발표된 아베 담화는 이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침략, 반성, 사죄를 명시했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 베풀어준 관용에 감사

의 뜻도 전달했다.

이렇듯 일본은 주체성의 확보라는 관점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관점의 적절한 타협 속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데올로기 그룹이 그랬듯이, 현실주의 그룹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나머지 미국에의 안보의존을 심화시켜 주체성의 상실을 가져올 여지가 강하다. 즉, 미일동맹의 강화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을 심화시켜 '동맹 관리'를 위한 엄청난 비용(방위분담금 지출, 원하지 않는 전쟁에의 참가 등)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언젠가 국내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실제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의 거대한 반발은 이러한 현실주의 그룹의 국가전략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일본 보수의 국가전략이 내포하는 주체성과 의존성의 딜레마는 일본 외교에 '제 3의 길'의 필요성을 자각시킬 것이다. 이데올로기 보수그룹처럼 주체성을 강화하고자 역사수정주의를 전면화시키면 시킬수록 고립의 길을 걷게 되며,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아무리 노력하여도 중국 및 미국과 대등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실주의 보수그룹처럼 미일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미국에 더욱 의존적으로 되어가며 주체성을 상실하는 역설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주체성과 의존성의 딜레마를 자각하기까지의 시간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일본은 '제 3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그리고 호주와 같은 중견국가(middle power)들일 것이다. 일본은 결국 자기 체력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일본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